

## 전통고택을 이용한 관광문화복지의 지역 활성화 방안

-영월군의 고택을 중심으로-

조원섭\*, 오승하\*\*

### Activation Plan with the Traditional Houses for the Local Tourism and Culture Welfare System

-Focused on the traditional houses in Youngwol-gun-

Won-seob Jo\*, Seung-ha Oh\*\*

**요약** 본 연구는 전통고택을 이용한 관광문화복지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4년 6월13일부터 11월7일까지 영월고택의 실태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척도문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건물소유자 면접을 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 관광문화복지의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통고택을 지역전통문화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통주거생활문화의 체험장으로 구축한다. 셋째, 관광자원과 전통고택을 연계한 각종 지역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미지 부각으로 전통고택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전통고택문화의 계승과 재해석으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때 지금보다 많은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귀중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ivation plan with the traditional houses for the local tourism and culture welfare system. For the study, an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s of Youngwol-gun and a set of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13th June to 7th November in 2014.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field observations and the interviews with building owners based on the criteria and SPSSWIN 18.0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ss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local tourism and culture welfare system and to find its regional identity, the traditional houses need to be taken as a means of representing the local traditions and cultures. Second, a unique experience center of traditional lifestyle and culture is necessary. Third, various local events on the tourism resources and traditional housings,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and promotion of local images are required for reinterpreting and reviewing the values of traditional hous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the valuable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development and income of the local region and attracting tourists much more than now, since the succe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housing cultures can harmonize the past, current and the future.

**Key Words** : activation., culture., traditional houses, tourism, welfare.

---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Museum Professor of Saekyung University (jws6013@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 of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Received : November 05, 2014

Revised : November 21, 2014

Accepted : December 5, 201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통고택(한옥)은 민중이 살았던,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집을 뜻하는 것으로 지리, 지세와 지질 및 기후의 자연조건과 사회제도, 문화수준, 생활양식, 풍습 등 민족성의 인문조건에서 서서히 조심성 있게 전통고택의 형식을 만들어 주고 있다[1]. 주거건축의 형성은 채집경제 사회의 구석기 시대와 생산경제사회의 신석기 시대를 거쳐 인공적으로 만든 주거의 흔적이 바닷가나 강가, 호수가 근처의 언덕에서 유적의 발견으로 주거건축이 발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2]. 이후 큰 발전을 이루어 우리의 주거건축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주거건축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건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기본이념으로 한 유교사상과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풍수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조영되었고, 주거건축 역시 당시의

신분 및 계층에 의하여 주거규모 등의 제한을 받으며 축조되었다.

이러한 주거건물 중 특히 상류주택(고택)의 조영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엄격한 의례적 생활에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력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큰 규모의 집을 짓고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있었으며,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이렇듯이 주거건물(고택)의 구성과 요소 등 조영원리에는 질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계적인 고찰을 통한 관광자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 문화재청 자료[4]에 의하면 영월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2, 도지정 16, 문화재자료 10, 무형문화재 1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전통주거건물인 3곳의 고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특

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고, 지역의 전통고택과 연계한 관광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통고택에 대한 관광, 주거생활,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조성배경, 구성건물과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 활성화자원으로써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전통고택을 통하여 관광객 및 지역민의 전통 주거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존·보완·개선을 위한 최근연구는 다음[5,6,7,8]과 같다.

정봉섭[5]은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연구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주민참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참여 유형에 따른 주민참여, 주민협력, 주민통합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결과는 전통고택을 활용한 지역관광개발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연구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유창[6]은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연구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전

통문화관광에서 관광운영자가 전통을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 인식은 전통의 재현과 수용 과정에서 작동 양상에 대한 민족지적인 연구이다. 이 결과는 전통문화관광으로의 활용 시 고려해야 상황과 과정들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전통한옥의 사례를 통하여 관광의 목적으로 전통을 재구성하거나 변화시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한국적인 고유문화의 특색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두고 있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미라[7]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전통주택 감상프로그램 개발에서 전통주택은 그 시대의 조형의식과 미의식 그리고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조형작품으로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그 시

대의 생활문화를 일상생활 공간을 통하여 보다 피부밀착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전통주택 감상프로그램은 건축물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감을 살려,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공간 변화와 깊이 감을 경험하고 공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 체험 감상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 결과는 전통주택의 우리 생활상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 중심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통주거건축에 대한 의미와 주거생활상을 관람객 중심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관광문화복지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김주아[8]는 한옥의 보전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한옥은 자연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영되는 건축물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통풍과 채광 그리고 에너지 활용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도록 계획되었으며, 한옥의 재료는 자연 그대로 이용하였고 따라서 허물어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인간적인 한옥은 바로 지금 우리가 활발히 연구하는 생태건축·지속가능한 건축으로 보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현재 한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자신의 살림집에 여행객을 맞이하는 민박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서구적인 건축물에 어울리는 가구와 설비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실내에 배치되어 한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한옥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옥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활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의 동향은 전통주거건축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문제점과 보존, 개선, 보완을 통한 관광자원화 노력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고택건물을 대상으로 관광문화복지 전

반의 경향을 살펴보고, 관광문화복지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문화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지역의 전통고택건물 활용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전통고택을 이용한 관광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지역관광문화

관광이란 대부분 여행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관광동기와 여행 동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지방 또는 국가의 경관, 기후, 풍토 등의 자연환경, 사적 및 풍습의 역사적 환경, 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 동기는 인간의 본능으로 관광욕구가 일상의 번잡성과 단조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욕구가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관광자원에는 자연그대로의 관광자원과 다듬어 만든 인공적관광자원이 있으며, 자연적인 관광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9].

따라서 지역관광문화자원의 특성으로는 원형보존, 다양성, 가변성, 주관적 만족의존, 조화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의 가치결정요인으로는 접근성, 매력성, 이미지, 관광시설, 하부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관광행동의 유형으로는 주유형 관광자원, 체재형 관광자원으로 나누고 있다[9].

### 2.2 전통고택건물

우리의 주거생활은 실내생활을 하며,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다. 거기에 부엌과 온돌방을 기준으로 하여 기능에 맞도록 조합이 되

는 공간구성, 그리고 구조방법의 건축적 요소 및 건축 재료와 조형성이 우리의 주거건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형태로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지리학적 측면, 인류 및 민속학적 측면과 건축학적 측면에서 주거건축의 형식을 유형화 할 수 있다. 그 중 건축학적 측면에서 주남철은 함경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10].

이러한 전통고택의 구성은 송유배불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는 사회적 계급 또는 신분계층에 따라서 그대로 주거건축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나타나게 된다. 즉, 거주자의 계급 및 계층에 따라서 양반계층이 거주하게 되면 상류주택(고택)이라 하고, 중인과 상민계층이 거주하게 되면 중류주택과 서민주택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양반계층이 거주하는 상류주택(고택)은 일반적으로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실천의 장소이면서 사회적 권위와 질서를 표현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 2.3 관광문화복지

문화가 관광자원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문화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인식된 2000년대부터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유형의 자원을 둘러보는 과거의 관광개념에서 무형의 문화가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를 디지털 문화시대라고 일컫는다. 이는 글자 그대로 첨단산업과 연계되어 문화관광의 영역을 넓혀 놓았으며, 그 문화는 국가전략자원화 하면서 관광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관광은 기존의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에 무형의 문화자원이 더해져 문화관광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관광문화복지의 새로운 접근은 문화를 매개체로 한 한국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유·무형이든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문화복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관광문화복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11].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 3.1.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고택을 중심으로 건축적 및 지역적 특이성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구정, 김종길, 고진하 고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하였다.

#### 3.1.2 조사방법

조사는 연구대상 우구정, 김종길, 고진하 고택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건물소유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접대면 하여 면접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면접법[12]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고택의 관리주체, 주요내용과 특징, 현재 전반적 관광문화복지 운영실태와 특정현황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 6월 13일부터 11월 7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택건물의 관광 문화복지의 활용실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척도문항을 관련 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및 건물소유와 관리자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2 연구설계와 가설

#### 3.2.1 연구설계

연구의 설계는 전통고택건물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및 지역민을 위한 관광문화복지의 지역 활성화 방안

전반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 제시하여 지역 관광문화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한다.

### 3.2.2 연구가설

연구가설은 관광객 및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관광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구축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관광문화복지 이미지 구축과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3.3 연구도구

#### 3.3.1 지역관광문화

지역관광문화의 척도기준은 서철현[9]의 이론을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지역관광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시설, 사회적 환경, 관광자원, 관광동기, 관광자원의 특성과 가치, 관광의 행동유형, 지역의 관광문화특성과 전통고택의 관광문화자원화, 지역관광문화의 강점과 약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 3.3.2 전통고택건물

전통고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물의 현황의 조사도구는 박언곤[1]과 강영환[3]의 이론을 기준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지리, 지세와 지질 및 기후의 자연조건과 사회제도, 문화수준, 생활양식, 풍습, 주거건물(고택)의 구성과 요소 등 조영원리와 질서 그리고 현재 보전관리를 중심으로 현상파악을 위해 배치, 건축형식, 조성배경, 문화재 지정 현황과 보전관리 관련현황, 활용실태에 대하여 건축학적 측면전반을 파악·분석하여 측정하였다.

#### 3.3.3 관광문화복지

조사대상 3개 전통고택의 척도는 김주아[8]와 조용준[11]의 이론을 기준으로 한옥의 보전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자연주의적 사상,

생태건축·지속가능한 건축으로 보전해야할 이유, 관광의 한 분야로의 인식,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의 문화자원, 한국관광산업 활성화방안, 관광객유인과 수입창출방안, 관광문화복지의 필요성을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중심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관광문화복지의 활성화 방안 전반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지역관광문화 실태 분석

#### 4.1.1 관광문화의 강점

지리적으로는 강원남부 내륙관문의 중심도시로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료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농촌경쟁력강화와 쾌적한 도시 및 맛과 친절의 도시로의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영월군의 역사와 관광문화로는 장릉, 청령포, 단종유배길, 금강정, 창절사, 관풍헌을 중심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역사유물이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선돌, 김삿갓계곡, 김삿갓의 풍류, 고씨동굴, 요선정과 요선암, 한반도지형, 어라연, 동강과 서강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보덕사, 금몽암, 범홍사의 사찰관광자원이 있으며, 그밖에 천문대를 비롯한 다수의 박물관, 읍내공공미술거리,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스포츠파크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있는 다양한 테마의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의 축제로는 단종문화제, 국제사진제, 동강여름축제, 김삿갓 문화제를 매년 실시하여 지역박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과을특구의 활성화 일환으로 격년제로 세계박물관국제포럼을 실시하여 국내외의 많은 석학들을 초청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과 박물관 활성화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영월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 숨 쉬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관광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1.2 관광문화의 약점

관광자원은 인간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활양식과 사고의 방법을 이해하는 형태이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 관광의욕을 충족시키고, 관광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목적물로서 유·무형의 관광대상(자원)이며,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타 지역에서 보여 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점이 영월에서도 비슷하게 노출되고 있다. 즉, 관광자원의 유지, 관리, 운영, 홍보 등의 확실성 그리고 지역행사의 주제와 부대행사의 유사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흡, 관광자원과 지역축제문화 공간으로의 접근성 부족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영월하면 아직도 낙후된 시골농촌마을 그리고 탄광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공존하고 여기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역사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사회관광, 농업관광, 위락관광, 박물관을 등이 어우러지는 특화된 전통문화 관광지로써의 명품이미지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광 전문인력의 지속적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문화연구와 관광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절실하며,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자원의 전반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역사, 문화, 왕릉, 충효, 유교, 관광, 자연환경, 박물관 등의 특성화 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월에 대한 역사와 관광자원에 왕릉·충효 및 유교의 전통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의 문화적 토대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의 계승이 요구된다. 즉, 역사관광자원과 자연관광자원에 전통 건물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여기에 박물관과 지역축제문화 등의 다양한 관광관련 행사를 접목해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개발과 홍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2 전통고택건물의 활용현황 분석

전통고택의 주요건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2.1 우구정 고택

강원도 문화재자료 70호로 현재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10여년 전에 노후된 행랑채를 철거하여 기존의 ㄱ자형 배치에서 지금은 ㄷ자형 배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백골집으로 상류주택의 위계를 따르고 있다.

안채는 우물마루의 대청, 툇마루와 방, 부엌으로 구성된 정면 4칸 측면 4칸의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대청 중앙부 원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하고 있는 홀쳐마로 지붕은 맞배와 팔작기와지붕을 혼용하고 있으며, 이 고택은 대청의 중앙부 원형기둥과 지붕에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사랑채는 우물마루의 대청, 툇마루와 방, 부엌(대문)으로 구성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한 홀쳐마의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안채 후면 담장 밖으로 최근에 신축한 화장실 건물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한 홀쳐마의 맞배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건물은 현재 후손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옥숙박체험, 전통혼례, 전통먹거리(청국장, 순두부, 김치)체험 등이 가능하다. 향후 전통 먹거리와 볼거리 및 농산물직거래 확대 그리고 마을 뒷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코스 개발과 한옥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전통체험마을로의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디딜방아, 서고, 창고, 우사로 구성되었던 행랑채의 복원을 통한 고택의 원형인 ㄱ자형 배치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약되었다.

#### 4.2.2 김종길 고택

강원도 문화재자료 71호로 현재 안채, 사랑채, 화장실, 주방용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도 부터에 안채를 제외한 건물을 복원하였다. 전체적인 형식은 ㄱ자형 배치를 보이고 있는 백골집이다.

안채는 우물마루의 대청, 툇마루와 방, 부엌으로 구성된 정면 6칸, 측면 6칸의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구성은 약간 가공한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고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하고 있는 제형대공의 5랑 집이다. 그리고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안채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랑채는 1995년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조사 당시 一자형 평면에서 현재는 ㄴ자형평면으로 복원되어 있다. 내부구조를 현대식으로 구성하여 한옥체험 숙박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일 숙박인원은 40명수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내부의 넓은 마당을 형성하고 있어 이곳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체험이 가능하며, 별동으로 축조된 조건당에서는 전통차를 비롯한 현대인을 고려한 카페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건물은 현재 김종길 후손이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한옥스테이, 전통혼례, 종부가 들려주는 종가이야기, 한옥이야기, 성년식, 전통음악회, 종가음식 체험 등이 가능하다. 이들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향후 우리전통문화, 다양한 음악회, 궁핍한 시절의 음식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2.3 고진하 고택

강원도 문화재자료 72호로 현재 안채, 사랑채, 행랑채, 헛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ㄱ자형 배치를 보이고 있는 백골집으로 상류주택의 위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공간인 안채보다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 약간의 격을 높이고 축조되고 있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안채는 우물마루의 대청, 툇마루와 방, 부엌으로 구성된 정면 4칸 측면 4칸의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하고 있는 홑처마로 지붕은 맞배기와지붕을 하고 있다. 이 고택은 상류주택의 안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팔작기와지붕이 아닌 맞배기와지붕으로 축조되어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사랑채는 우물마루의 대청, 툇마루와 방, 부엌(대문)으로 구성된 정면 6칸 측면 2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한 홑처마의 팔작기와지붕을 이루고 건물전체의 위계를 높이고 있다.

안채 정면으로 행랑채가 광, 대문, 우사로 구성된 정면 4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를 세우고 있으며,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한 홑처마의 맞배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행랑채 옆으로 헛간채 건물이 정면 1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구성은 막돌기단상에 막돌주초석을 놓아 방형주(판벽)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도리를 구성한 홑처마의 맞배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건물은 현재 후손이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한 체험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활용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 관광문화복지 활성화 분석

#### 4.1.1 활성화의 기본방향

문화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며, 관광은 타 지역의 이색적인 문화를 보는 행위이다. 즉, 문화관광은 한 지역을 상품화하고, 관광객에게 이를 소개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

는 작업이다. 이에 영월의 주거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고택은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문화복지 자원이다.

이러한 관광문화복지 자원을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신한 정책과 제도, 관련 산업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생산 및 유통관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월의 경우 문화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유리한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문화적 자산을 상품으로 기획하고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생명력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영월의 다양한 역사·전통문화와 관광자원 그리고 전통고택건물을 연계한 각종 체험, 축제, 전시, 행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미지 부각으로 우리지역 전통고택건물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그리고 각종 행사의 연중 정례화 및 다양화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주거생활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한다. 그밖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전통민속품과 공예품, 스토리텔링화, 콘텐츠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문화 및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통고택을 이용한 관광문화복지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문화관광 실태에서 영월군의 강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관광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는 지역중심의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약점으로는 아직도 낙후된 시골농

촌마을 그리고 탄광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결과는 영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이를 단순히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의미는 정봉섭[5]의 지역관광 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연구와 일정부분 일치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고택건물 활용은 한옥스테이, 전통음악회, 전통혼례, 전통먹거리, 종택이야기, 성년식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향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전통생활문화, 다양한 음악회, 구ప్ప한 시절의 음식체험, 먹거리와 볼거리 및 농산물직거래 확대, 전통문화체험코스 개발과 한옥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전통체험마을로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미는 유창[6]의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연구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셋째, 관광문화복지 활성화는 역사·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전통고택건물을 연계한 각종 체험, 축제, 전시, 행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이미지 부각으로 우리지역 전통고택건물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결과는 각종 행사의 연중 정례화 및 다양화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주거생활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며,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전통민속품과 공예품, 스토리텔링화, 콘텐츠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문화 및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관광문화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의미는 한미라[7]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전통주택 감상프로그램 개발과 김주아[8]는 한옥의 보전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연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 6. 결론

이상의 연구에 따른 결론과 향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전통고택스테이를 통하여 숙박과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며, 여기에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관광코스로 활용한다.

둘째, 지역의 전통주거생활상을 담은 추억의 생활프로그램 즉, 토속음식체험, 종가이야기, 전통민속놀이체험, 전통복식체험, 전통혼례체험, 전통고택의 건축이야기 교실, 관광전통체험마을 등을 운영한다.

셋째, 고택을 이용한 풍류의 놀이마당으로 전통음악회, 퓨전음악회, 전통생활문화콘서트, 전통민속공연, 전통차와의 추억여행, 전통먹거리와 볼거리 마당, 전통식품 직거래, 농특산물 직거래, 전통민속품·공예품 시연 및 판매, 현대인을 위한 로컬푸드+레스토랑+커피숍, 다양한 민속이벤트 등으로 운영한다.

향후 전통고택문화의 계승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할 때 지금보다 많은 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광자원에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를 아우르는 미래 지향적인 역사문화예술관광 이미지로의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영월군, 학술용역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2014.(발체).

## References

- [1] Eongon Park, Lecture on Korean architecture history, p.222, Moonwondang, 1998.
- [2] Younghwan Kang, History of Korean life style culture, p.21, Kimundang, 1991.
- [3] Younghwan Kang, Social history of houses, p.86, Woongjin publisher, 1993.
- [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bsite, www.cha.go.kr
- [5] Bongseob Je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residents in development of local tourism, Relationships in integration, Graduate school of Kyeonggi tourism university, 2010.
- [6] Chang Yoo, Realization and inclusion of traditional cultures in tourism,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 [7] Mira Han, Development of display program of traditional houses using a storytelling techniqu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2014.
- [8] Jooah Kim,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through preserv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Graduate school of Urban Architecture of Hongik University, 2002.
- [9] Cheolhyeon Seo et. al., Describe theory on tourism resources, pp.20~25, Daewang publisher, 2005.
- [10] Wonseob Cho, Study on the traditional settlements in Poongdeok village, Youngwol College of Engineering collection of thesis, Vol. 5, p.117, 1998.
- [11] Youngjun Cho et. al., Cultural tourism resource, Daewang publisher, pp.34~36, 2009.
- [12] Seok-jo yoon,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p.47, Gongdongchae, 2012.

---

저자약력

---

조 원 섭(Won-seob Jo)

[정회원]



- 2004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1997년 3월~현재 : 세경대학교 박물관과, 산학중점 교수

<관심분야 >

전통건축, 문화재, 관광, 건축디자인

오 승 하(Seung-ha Oh)

[정회원]



- 2012년 2월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2년 3월~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박사과정)
- 2014년 현재 : 세경대학교 미술치료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가정, 노인의 성, 노인상담